

국내 도서관 다문화서비스의 현 단계와 과제



글 | 조 용 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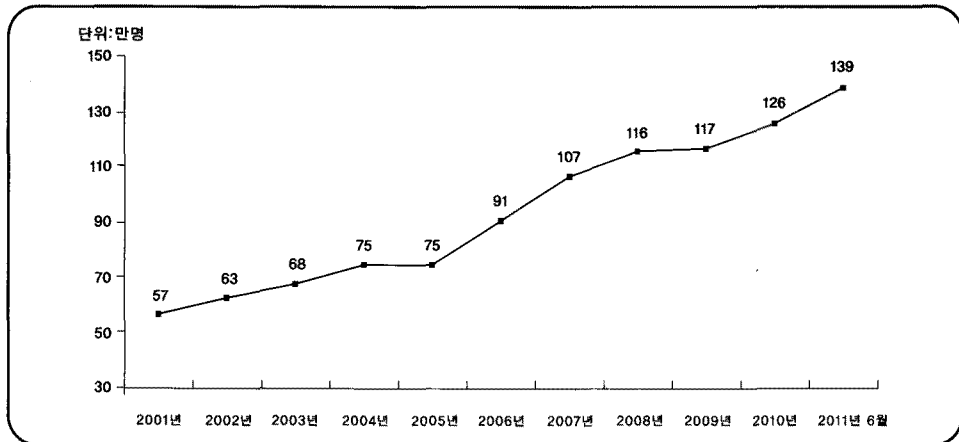
대구가톨릭대학교 도서관학과 교수

yongwan@cu.ac.krr

서론

지난 6월말부터 7월까지 필자는 재직 중인 대학의 지원을 받아 학과 학생들과 함께 북미 서부 지역 대도시 공공도서관들의 다문화서비스 현장을 탐방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한 도시 내 도서관 시스템의 중앙관과 코리아타운이나 차이나타운 등에 위치한 분관 도서관들이 지역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을 위해 각자의 영역에서 서로 협력하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모습을 여러 도시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 도서관들은 우리보다 오랜 다문화사회의 경험을 통해 도서관 자료와 시설, 서비스, 프로그램, 홍보, 사서인력, 정책 등 전반에서 다문화적 특성을 대체로 잘 녹여내고 있었는데, 초기 단계에 있는 국내 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와 견주어 보았을 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 한국사회도 이제 다문화사회로 본격적으로 접어들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2011년 6월말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인 총 1,392,167명으로 2001년 12월말 57만명 정도에 비해 약 10년 만에 2.4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들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이른바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이 전체의 약 60%, 미국인이 10%, 베트남인이 8% 등으로 가장 많으며, 이어 일본, 태국, 인도네시아, 몽골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감추이(출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발맞추어 국내 도서관계에서도 이주민 거주지역의 도서관들을 중심으로 다문화서비스를 위해 힘을 기울여오고 있다. 국내 도서관계가 다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지 10년이 채 되지 않지만, 도서관과 사서들의 노력 덕분에 짧은 기간동안 상대적으로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국내 도서관 다문화서비스의 현 단계

국내 도서관계의 다문화서비스에 대한 관심은 민간영역의 도서관, 즉 사립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에서 출발했다고 할 수 있다.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 등의 인권보호와 정착지원 활동을 벌여오던 시민, 종교단체 등은 활동과정에서 이주민의 모국어로 된 자료와 다문화도서관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모국어로 귀환한 이주노동자, 현지의 활동가나 선교사, 여행객 등을 통해 이주민 모국어 자료들을 입수하여 비록 규모가 작고 비체계적이지만 다문화도서관을 만들기 시작하였는데, 2004년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의 드림도서관, 2005년 아시아인권문화연대의 꼬마도서관, 2006년 아시아평화인권연대의 민들레도서관 등이 대표적 사례들이다.

한편, 비슷한 시기에 일부 공립 공공도서관에서도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다문화서비스의 움직임이 있었으나, 대부분이 한글교실과 문화체험 등을 제공하는 수준으로 도서관의 정체성이 잘

드러나지는 않았다. 그러다 2007~2008년경 안산시립도서관(관산도서관)과 광양시립도서관(중앙도서관) 등 일부 공공도서관들이 동남아 지역의 도서를 납품하기 시작한 1~2개의 업체를 통해 다문화자료를 구입하기 시작하고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이 개관하면서 공공영역의 도서관에서도 다문화자료 기반의 본격적인 다문화서비스가 시작되었다.

그 이후 3년 정도 지난 현재까지 국내 도서관계의 다문화서비스를 위한 활동은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국가 도서관 정책의 한 부분에 다문화서비스가 포함되었으며, 국립중앙도서관 등 국가도서관 단위들이 다문화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많은 공립과 사립의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이 지역의 이주민들을 위해 다문화자료실이나 다문화도서관코너 등을 설치하고 있으며, 일부 도서관은 다문화 특화 도서관으로 설립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다문화서비스와 프로그램들이 지역의 이주민들을 위해 활발하게 제공되고 있다. 국내 도서관계의 다문화서비스의 현 단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국가 도서관정책에 다문화서비스가 포함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국내 도서관계의 다문화서비스는 초보적 수준을 조금 벗어나는 상태로 볼 수 있는데, 몇 년 전만해도 각 도서관들이 지역의 이주민들을 위해 개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최근 2~3년 전부터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등 국가적 차원의 도서관 정책과 사업 속에 부분적이거나 다문화서비스가 포함되기 시작하였다.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9~2013)’에서 “Ⅲ. 지식정보격차 해소로 사회통합에 기여”라는 정책과제 하에 “과제번호 3-1-5 다문화가정을 포용하는 도서관서비스 제공”이라는 과제로 다문화서비스에 관한 사업계획을 포함시키고 있다. 추진전략으로는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존중의 도서관 프로그램 확대, 온라인 및 오프라인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제공, 결혼이민 가족을 대상으로 독서프로그램 마련 등을 설정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은 2009년 ‘다문화도서관 조성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통해 충남 천안과 경남 김해 2곳에 다문화도서관을 조성하고 전국 12개 도서관의 다문화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총 182백만원을 지원하였다. 이어 2010년에는 총 533백만원을 들여 다문화자료실 조성 6개관과 다문화관련 프로그램 16개관을 지원하였고, 2011년에는 총 570백만원을 들여

다문화자료실 조성 10개관과 다문화관련 프로그램 17개관을 지원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도 최근 몇 년 사이에 부분적이거나 다문화 관련 사업을 추진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사서들의 다문화인식 제고와 다문화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으로 2009년 9월 ‘도서관다문화서비스과정’을 개설한 후 2010년과 2011년까지 3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그리고 2009년 5월 ‘디브리리’ 포털서비스 중 하나로 ‘다문화정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서비스는 다국어로 다문화 소식과 다문화 정책, 생활정보 등을 제공하며, ‘다문화 책’ 코너를 통해 국립중앙도서관이 수집한 다문화자료의 서지정보와 다문화 관련 국내도서관의 서지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 외에도 국내의 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 협력사례를 엮은 『도서관에서 다문화를 만나다』라는 단행본과 다문화서비스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다문화서비스와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왕성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09년 한국 전래동화에 베트남어·영어자막을 입힌 ‘2009 다문화가정을 위한 우리나라 전래동화’의 개발과 보급에 이어, 2010년에는 아시아 전래동화(한국, 중국, 필리핀, 베트남, 몽골, 태국 등 6개국) 및 우수 창작동화 동영상 콘텐츠 150편(6개 국어 애니메이션)을 개발, 보급하였고, 한국 전래동화 2편을 영어, 중국어, 베트남, 태국어, 몽골어 등 5개 언어로 발간하여 전국 공공도서관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 보급하였다. 그 외에도 여러 다문화서비스와 관련된 세미나들을 개최하고 다문화 관련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다문화 특화 도서관들이 개관하였고, 도서관 내 다문화자료실이나 다문화자료코너가 설치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2004~2006년 사이에 이주민 관련 단체들이 다문화도서관을 개관한 이후 민간영역에서 다문화도서관을 설립하는 흐름은 계속 이어져 왔다. 한편, 공공영역에서도 공공도서관에 다문화자료실이나 다문화자료코너 등을 설치하는 경우가 늘어났고, 일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들은 다문화 특성화 도서관으로 개관하기도 하였다.

우선 국립 공공도서관 내에 다문화자료실/다문화자료코너를 설치하는 경우가 매년 증가하고 있었는데, 여러 공공도서관들이 자체적인 노력으로 다문화자료실 등을 조성하는 경우가 주를 이루다가, 2010년과 2011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의 ‘다문화도서관 조성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통해 총 16개 도서관에 다문화자료실이 조성되었다. 그리고 이주

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일부 공립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들은 다문화 특화 도서관들로 설립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남양주 평내도서관과 창원 성주도서관 등이 다문화 특화 공공도서관으로 개관하였으며, 다문화 특화 작은도서관으로는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 김해다문화도서관, 성환다문화작은도서관, 제천 오로라도서관, 달서다문화가족도서관, 어울림작은도서관, 닥밭골작은도서관, 고맙습니다 시흥다문화작은도서관, 화도다문화도서관 플레랑스, 다문화도서관 건강보험ZONE 등이 개관(이 중 일부는 민간에 위탁되어 운영 중이다.)하였다.

민간영역에서 다문화도서관 설립의 흐름은 앞에서 언급한 드림도서관, 꼬마도서관, 민들레도서관 이외에도 국제어린이도서관, 용인작은느티나무도서관, 대전외국인이주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다문화도서관, 다문화어린이도서관 모두, 다문화도서관 나눔, 다문화도서관 새봄, 부천 책마루 다문화어린이도서관, 어슬렁 책다락방, 다문화작은도서관 단비, 수원다문화도서관 등의 개관으로 이어졌다. 이 중에서 다문화어린이도서관 모두는 2008년 9월 서울시 동대문구에 1호점 개관을 시작으로, 경남 창원시, 부산시 영도구, 경북 구미시, 대구시 남구, 충북 충주시, 경기도 안산시(9월경 개관 예정) 등 현재까지 총 7호점까지 설립,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조선 및 해양전문기업인 STX그룹의 지원이 매우 컸다. STX는 다문화어린이도서관(향후 최대 10개관까지 확대 계획)의 설립과 운영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며, 자사의 해외법인과 지사를 동원해 다문화 아동도서관을 구입하여 기증하는 활동도 펼치고 있다.

다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

2000년대 중반까지 도서관들이 다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환경은 매우 열악하였다. 당시에는 다문화에 대한 도서관과 사서들의 인식이 높지 않았고, 다문화서비스의 토대가 되는 이주민 모국어 자료의 입수, 다국어 콘텐츠 구축, 다국어 목록 및 검색시스템 등이 제대로 구비되지 못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초창기 민간영역의 다문화도서관들은 비체계적이고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자료를 입수하고 수기 장부나 비표준적 목록으로 자료를 관리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최근 다문화에 대한 도서관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다국어 정보처리와 관련된 기술과 경험들이 축적되면서 다문화서비스를 위한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다.

먼저 이주민 모국어로 된 다문화자료의 구비를 위한 환경이 많이 나아졌다. 초창기 국내에 1~2개 업체만이 도서관에 다문화자료를 유통시켰으나, 최근에는 5~6개 이상으로 증가하여 도

서관의 다문화자료 구비가 과거에 비해 수월해졌다. 이들 공급업체 외에도 현지 인터넷 서점을 통해 입수하거나 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과 같이 이주민 출신국의 도서관과 자료교환 협정을 체결하고 정기적으로 자료를 교환하기도 하였다. 최근 국내도서 중에서 다문화사회와 관련한 학술도서, 일반도서, 동화책 등도 활발히 출간되고 있고 그 중 일부는 이중/다중 언어로 간행되고 있어 이를 다문화서비스를 위해 구입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도서관이 자체적으로 다문화자료와 다문화 콘텐츠를 제작하여 자체 활용하거나 타 도서관 등에 배포하는 경향도 있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국내 전래동화와 아시아 전래동화 등을 다국어 동영상 콘텐츠로 제작, 보급하고 한국 전래동화를 다국어로 인쇄하여 보급한 것에 더해,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은 도서관 교육용 애니메이션 2편을 다국어를 지원하는 DVD로 제작해 경기도내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초등학교 등에 배포하고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하였다. 일부 공공도서관도 자체적으로 다문화자료를 생산하기도 하였는데, 대표적으로 고흥평생교육관이 이중언어로 제작한 『한국어공부』(베트남어→한국어) 교재와 청주지역의도서관이 전래동화 등을 이주민언어와 한국어로 제작한 녹음도서 사례가 있다.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이주민의 정착과 적응, 생활지원 및 모국어 자료이용 등을 위해 제작한 다국어 책자들이 도서관의 다문화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문화체육관광부와 노동부, 여성가족부 등이 한국생활이나 근로, 가정생활 등에 관한 다국어 책자를, 경기도와 김해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생활안내 다국어 책자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농협 등 공공기관 등이 건강검진, 산재보험, 농사방법 등에 대한 다국어 책자 등을 발간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문학번역원은 국내 유명작가들의 문학작품 18개를 영어, 불어, 태국어, 베트남어, 중국어 등 5개 언어로 번역하였는데, 경기도는 이를 도내 공공도서관에 배포하였다.

한편, 민간영역에서도 다문화자료와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 또는 확보하여 다문화도서관에 보급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다문화자료의 자체 제작의 사례로, 아시아스타트위원회는 주요 이주민 언어 스티커를 부착한 우리나라 전래동화와 창작동화 도서를 도서관과 유관기관에 배포하였고,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주)창비가 KB국민은행의 지원을 받아 윤석중의 『넉집반』과 권정생의 『강아지똥』을 한국어와 영어 외에 주요 이주민 언어를 더한 다중언어 도서로 제작해 도서관 등에 배포하였다. 다문화자료의 해외 입수의 사례로, STX와 아시아나항공은 해외지사 등을 통해 다문화도서관 등에 제공하였고, 아름다운재단은 2007년부터 이주민 모국어 도서 수집

캠페인인 <책 날개를 단 아시아>를 통해 여행객들이 가져오거나 기부금으로 구입한 다문화도서를 전국 20여개 다문화도서관에 전달하였다. 디지털 콘텐츠의 제작의 사례로, 다음커뮤니케이션과 비영리법인 다음세대재단은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 6개국 82편의 그림동화를 한국어, 영어, 원어 등의 자막을 포함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한 '올리볼리 그림동화'를 온라인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무료로 제공하였다.

얼마 전까지 도서관의 목록구축 과정에서 다국어 문제는 영어를 비롯한 라틴어 계통과 일어, 중국어 등 일부 동양권 언어에 한정되었고 대부분의 도서관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다문화사회로의 전이가 빨라지고 도서관에 다양한 언어로 된 다문화자료가 유입되면서 기존의 언어들을 지원하는 문자표준으로는 중국어 간자를 비롯 태국, 베트남, 네팔, 미얀마 등 주요 이주민 사용언어 문자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다행스럽게 최근 몇 년 사이에 KOLASⅢ를 비롯해 국내 대부분의 최신 도서관 전산시스템에서 다국어 국제표준인 유니코드(Unicode)를 지원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다국어 기반의 목록 구축과 검색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를 활용해 공공영역의 도서관들은 주로 업체가 납품한 목록데이터를 반입하는 방법으로 목록구축을 하며, 민간영역의 도서관들은 업체의 목록데이터 외에 주변의 이주민들을 통해 직접 입력하는 방법도 사용하고 있다. 일부 도서관은 목록데이터의 다국어 적용의 부정확성을 보완하고자 다문화자료의 표지이미지를 스캐닝하여 제공하기도 한다. 이처럼 기술적으로는 다국어와 목록의 국제표준이 구현되어 있지만, 아직 일부 공공도서관들과 상당수의 민간영역의 도서관들이 예산 문제로 유니코드 지원 전산시스템으로 전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시스템 내에서 다국어 문자입력 방법 미비나 교육 미비로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도서관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다문화서비스들이 개발되고 있다

한글교실, 한국문화 체험, 한국요리 체험, 지역사회 이해 등 지역 내 여타 다문화 관련 기관과 단체들과 차별성없이 중첩적으로 제공되던 공공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와 프로그램은 각 도서관에서 다문화자료를 입수하기 시작하면서 점차 다문화자료가 중심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최근 다문화자료를 업체 등을 통해 입수하여 다문화자료실 또는 다문화자료코너를 설치하는 도서관들이 증가하면서 독서클럽, 독서지도, 동화구연, 북스타트 등 다문화도서 기반의 서비스와 프로그램들이 널리 확장되는 추세이다.

또한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이주민들을 찾아가는 다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들이 증가하고 있다. 도서관의 입지가 이주민들의 주거 환경과 맞지 않는 도서관이 많고, 장시간 근로, 농사와 육아 등 장시간의 가사활동, 불편한 교통 환경 등으로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이주민들이 많은 상황에서 도서관들은 방문대출, 순회문고, 다문화 유관기관 단체대출, 찾아가는 독서지도와 동화구연, 도서관 방문 교통수단 제공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도서관과 이주민들을 연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아직은 일부 도서관에 한정되지만, 한국어-모국어 이중언어능력을 보유하고 한국어 회 정착기간이 긴 결혼이주여성 등 이주민들을 기간제, 시간제 근로자 등으로 도서관에 채용하여 다국어 기반의 참고봉사와 동화구연, 목록구축 등을 제공하는 등 한 차원 높은 다문화서비스를 구현하는 도서관들도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민간영역의 다문화도서관에서 자원봉사나 시간제, 정식직원 채용 등 다양한 형태로 실시되고 있으며, 점차 공공영역으로 확장되어 최근 남양주시 평내도서관, 서울 노원어린이도서관, 성남 구미도서관, 포천시립소흘도서관 등에 결혼이주여성들이 기간제 직원 등으로 채용된 바 있다.

그 외에도 다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들은 다국어로 된 각종 안내표시나 도서관 이용안내 자료, 도서관 회원 신청서 등을 제작하기도 하며, 아직은 일부이나,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이나 김해다문화도서관 등은 다국어로 도서관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이주민들의 도서관과 다문화자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김해다문화도서관의 다국어 홈페이지 중국어버전(출처: 김해다문화도서관 홈페이지)

국내 도서관 다문화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과제

이상에서 국내 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 현 주소를 점검해보았다. 우리사회의 급격한 다문화적 변모에 발맞추어 등장한 국내 도서관계의 다문화서비스는 비교적 짧은 기간임에도 초기에 비해 상당히 발전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는 아직도 주 수요자인 이주민들에게 깊숙히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서비스 주체인 도서관 관련 정책당국과 사서들도 다양한 출신국가와 언어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난제들로 인해 다문화서비스에 대해 여전히 부담스러워 하는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서는 맹아기를 벗어나 성장기로 접어들고 있는 국내 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를 보다 향상시키기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도서관 정책당국, 도서관 관리층, 일선 사서들의 인식 속에 다문화서비스는 도서관의 기본 업무 중 하나라는 생각이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

장애인과 노인 등에 대한 서비스가 도서관 기본업무이듯 다문화사회에서 도서관 다문화서비스는 기본 업무영역에 속한다. 이는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과 미국도서관협회(ALA) 등 각 국 도서관협회 등이 다문화도서관 선언 또는 지침을 통해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는 사안이다. 물론 모든 도서관이 다문화서비스에 적극적일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사회가 빠르게 다문화 사회로 변모하고 있고,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처럼 다문화 현상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정 자녀, 유학생 등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도서관 관계자들, 특히 공공도서관 관계자들은 다문화사회와 다문화서비스에 대한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문화서비스 관련 연수나 세미나 등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며, 각 도서관이 바닥에서부터 쌓아올린 다문화서비스의 지식과 기술, 경험들이 잦은 순환근무로 인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할 방안들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다문화서비스 영역에서 국가 도서관 정책단위들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본 것처럼,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나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국립중앙도서관 등 국가적 차원의 도서관 정책과 사업 속에 부분적이거나 다문화서비스가 포함되고 있지만, 현장의 사서들은 다문화서비스에 관한 국가적 지원이 아직 상당히 부족하다고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처럼 국가 도서관 정책단위들과의 유기적 협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리

고 만성적으로 사서인력이 부족하고 잦은 순환근무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다양한 다문화서비스 업무들을 개별 도서관들이 각자 알아서 처리해야 하는 방식은 지나치게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이라 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별 도서관들이 다문화서비스를 이용자들에게 직접 제공하는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국가 도서관 정책단위들은 일선 도서관들과 긴밀히 연결된 상태에서 다문화서비스와 관련해 효과적인 정책을 만들고 도서관들의 다문화서비스 수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기술적, 법적, 제도적 토대를 만드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필자가 방문하여 살펴본 북미 서부지역에서는 대체로 한 도시 내 공공도서관 체계의 중앙도서관이 산하의 분관들을 위해 자료 선정과 구입, 목록구축 작업, 라벨 부착 등 장비작업 등을 수행함으로써 분관들이 이주민 이용자와의 직접서비스(public service)에 전념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지역대표도서관들이 대체로 그 기능을 원활히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가 도서관 정책단위가 다문화서비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해야 할 몫이 크다. 향후 국가 도서관 정책단위에서는 다문화서비스 정책수립, 예산 및 인력 확보와 지원, 다문화자료 입수, 다문화자료 및 콘텐츠의 제작과 배포, 번역을 위한 저작권 동의, 민간영역 도서관에 유니코드(Unicode)와 MARC 표준 목록시스템의 보급, 원어/번역/음역 및 입력수준에 관련된 다문화자료 목록지침의 개발, 다문화서비스 관련 종합적인 온/오프라인 교육과 훈련, 다문화자료 종합목록 및 상호대차 체계의 확립, 다국어로 된 공통포맷의 안내문이나 신청양식 등의 배포, 모범사례의 발굴 및 보급, 다문화서비스 관련 질의응답 처리 등의 역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개별 도서관에서는 다문화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도서관이나 자료실은 개관하는 것만큼 개관 이후 지속적 관리를 통해 성장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다문화 현상에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는 것에 맞춰 일부 단체장이나 기관장들은 다문화도서관이나 다문화자료실을 만들고 다문화자료를 구입해 채워 넣은 후 카메라 플래시를 받으며 테이프 커팅을 한 다음에는 예산, 인력, 자료 등의 지속적 지원에 무심하여 도서관이 이주민들에게 자리잡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할 수 있다. 필자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방문한 일부 다문화도서관이 그러하였는데, 개관 이후 사서도 없이 비전문 자원봉사자나 공공근로자만 둔 채로 자료의 확충은 고사하고 자료의 목록구축이나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 홍보활동 등을 거의 하지 않고 있었다. 한편, 일부 공공도서관들은 다문화자료실 등을 설치하고 관련 프

로그랩을 시행하는 등 다문화서비스를 활성화를 위해 노력은 하고 있으나 도서관의 입지조건이나 이주민들의 생활여건 등의 이유로 이주민 이용자들이 별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다문화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주요 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지역거주 이주민들의 국적별, 성별, 직업별 등 지역의 다문화 실태를 파악해야 하며, 지역 행정기관이나 다문화 유관 기관, 나라별 이주민 모임 등을 통해 이주민들의 요구를 파악하면서 동시에 적극적인 홍보 및 협력을 펼쳐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문화도서 유통업체나 다른 다문화자료 및 콘텐츠 제작 기관 등을 통해 다문화자료를 지속적으로 확충, 발전시켜나가야 하며, 이주민과 기존 국내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다문화 프로그램과 서비스들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이주민들이 도서관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다국어 안내자료와 다국어 안내표지, 다국어 홈페이지, 나아가 다국어 목록의 제공도 필요하다.

특히, 다문화자료와 다문화서비스가 지역 이주민들 속에서 뿌리내리기 위해 도서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동도서관, 순회문고, 자료배송, 방문 프로그램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역의 이주민 사회에서 영향력이 있으면서 한국어와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결혼이주여성 등을 도서관의 기간제, 시간제 근로자 등으로 채용하여 이주민 사회와 도서관을 연결하는 역할과 다문화자료 선정과 다국어 목록 구축, 다국어 참고봉사 등의 역할을 부여한다면, 지금과 다른 차원높은 다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치며

부족하나마 지금까지 필자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국내 도서관계의 다문화서비스의 현 단계를 진단하고 더욱 진전된 다문화서비스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방안들을 제언하였다. 앞서서도 언급한 것처럼, 우리 도서관계는 미증유의 다문화사회를 맞이하여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이었지만 많은 성과들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다문화서비스 수준이 더욱 향상되고 이주민과 지역주민의 삶 속에 도서관이 확실히 자리잡기 위해서는 아직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아 있다.

평일 오후 시간대임에도 중국인 노인들과 학생들로 북적거리던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 도서관에서 중국 이민 2세대 사서가 열정적으로 일하던 모습과 LA 코리아타운 도서관에서 한국

인 어린이들끼리 모여 책을 읽고 남미계 아빠가 3세 쯤 되는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던 모습, 밴쿠버 도서관에서 새 이민자들에게 지역의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프로그램 자료들이 머리 속에 선명히 남아 있다. 이와 같은 다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이 있기에 이주민들이 새로운 사회에서 낙오되지 않고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설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수준으로 성장하기 위해 우리 도서관계가 풀어야 할 과제는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도서관들은 그들에 비하면 다문화의 경험이 짧고, 경험이 짧은 것에 비하면 이루어 놓은 성과도 적지 않다. 앞으로 우리 도서관계의 다문화에 대한 관심과 인식,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등 국가 도서관 정책단위(앞으로는 지역대표도서관도 포함되어야 한다.)의 강력한 정책적, 기술적, 제도적 지원, 그리고 개별 도서관들의 이주민과 지역주민을 아우르는 다문화서비스의 제공 등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다문화 사회에서 도서관은 이주민들의 정착과 적응의 든든한 후원자가 될 것이며, 지역주민들에게 다문화 인식을 확산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㉞

[참고문헌]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http://www.immigration.go.kr>>[인용 2011. 8. 15.]
- 이경란, 한복희. 2009. “공공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 운영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0(2): 47-74.
- 조용완. 2008. “국내 도서관의 다문화자료 입수를 위한 효과적 방안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9(3): 429-456.
- 조용완, 이수상. 2011. “국내 다국어/다문화 도서관 서비스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1): 269-297.
- 조용완, 이은주. 2010. 다문화사회에서의 도서관서비스, 경기: 경기도사이버도서관.
- 한국도서관협회. 2010. 한국도서관연감.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한국도서관협회. 2009. 한국도서관연감.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한윤옥, 조미아, 김수경. 2009. “다문화가정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3(1): 135-160.